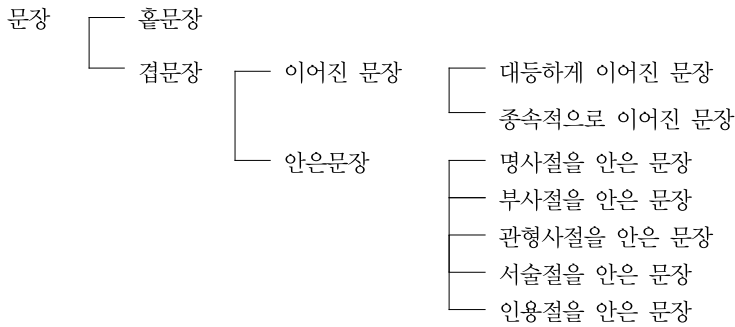


2.1. 문장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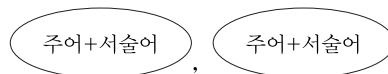


문장은 크게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분류되는데, 홀문장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고, 겹문장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또한 홀문장들이 모여서 겹문장을 이루는 것을 **‘문장의 확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하늘은 높다.’와 ‘바다는 깊다.’라는 두 홀문장이 모여서 ‘하늘은 높고 바다는 깊다.’라는 겹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농부들은 ★를 기다리다.’, ‘비가 오다.’라는 두 홀문장이 모여서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겹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겹문장은 홀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논리적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뛰었다. 나는 버스를 탔다’라고 홀문장을 나열하는 것보다 ‘나는 버스를 타려고 뛰었다’라고 겹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이라는 주어를 두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되므로 겹문장의 내용이 더 압축적이고 집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

2.2. 이어진 문장



예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다

(1)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나열, 선택, 대조 **필수암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이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열(and), 선택(or), 대조(but)’의 의미로 연결된 것인데,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꼭 외워 두기로 하자.

- 예 나열: 하늘은 높고 바다는 깊다. 그는 가수이**면서** 배우이다.
 선택: 밥을 먹**거나** 빵을 먹어라. 오늘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대조: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 수학은 어렵**지만** 국어는 쉽다.

많은 친구들이 ‘대등하게’라는 말의 뉘앙스 때문에 ‘대조’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속하지 않는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대조’ 역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포함된다. 이때의 ‘대등’은 의미적인 대등이라기보다는 지위적인 대등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특징은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위의 예문을 ‘바다는 깊고 하늘은 높다. 빵을 먹거나 밥을 먹어라.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로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2)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원인, 의도, 조건, 양보(although)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3가지 의미만 나타내는 것에 비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절 2개가 나란히 이어져 있지만 ‘나열, 선택, 대조’의 의미가 아니라면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봐도 좋다.**

- 예 원인: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 했다.
 의도: 나는 학교에 가**려고** 일찍 일어났다. 나도 자네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왔네.
 조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분을 만나**거든** 인사 말씀을 전해 주세요.
 양보: 그것이 금덩이**라도** 난 안 가진다.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달리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위의 예문을 ‘길이 질어서 비가 온다. 나는 일찍 일어나려고 학교에 갔다.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난 안 가지더라도 그것이 금덩이다.’로 바꾸면 원래 문장의 의미와 크게 달라진다.

더 알아보기 |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의 형태가 같은 경우

대등적 연결 어미와 같은 형태의 어미가 종속적 연결 어미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의미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

- 예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시간의 ‘선후’를 의미)
- 예 그는 화가이**자** 가수이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잇따라 일어남’을 의미)
- 예 그는 화가이**면서** 가수이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동시에 겸함’을 의미)

따라서 ‘-고’, ‘-자’, ‘-면서’ 등이 무조건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외워서는 안 되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2.3. 안은문장

↳ 하나의 절이 전체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들어있는 문장



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인용절을 제외한 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 서술절은 이미 '제2장 1. 문장 성분'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 서술절의 개념이 부족하다면 '제2장 1. 문장 성분'의 '☺더 알아보기'를 확인하고, 여기에서는 그 절들이 각각 전체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명사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은 하나의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명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사형 전성 어미** '-(으)ㅁ, -기'가 필요하다. 명사형 전성 어미는 이 2개밖에 없다.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이므로 명사절 역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다.

필수암기

| 문장 성분 | 명사 | 명사절 |
|-------|------------------------------|--|
| 주어★ | 사실이 드러났다. | 민석이가 범인임이 드러났다 |
| 목적어★ | 그는 사실을 알았다. 농부들은 비를 기다린다. | 그는 민석이가 범인임을 알았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 보어 | 나는 학생이 아니다. | 이것은 대중을 위함이 아니다. |
| 서술어 | 내가 바라는 것은 합격이다. | 나의 요즘 관심사는 환경을 보호하기이다. |
| 부사어 | 나는 외국어에 능통하다 | 나는 외국어를 말하기에 능통하다. |
| 관형어★ | 나는 그녀 때문에 짜증이 났다. | 나는 맘이 흐르기 때문에 짜증이 났다. |

적용 문제-29

2014학년도(2013년) 수능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 : 색깔이 희기가 눈과 같다.
- ㉡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길 바란다.
- ㉣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적용 문제-30

2021학년도(2020년) 6월 평가원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원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2) 부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은 하나의 절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사형 어미 ‘-게, -도록, -듯이’**가 필요한데, 특이하게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의해서도 부사절이 형성된다고 본다.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부사어뿐이므로 부사절 역시 부사어 역할만 한다.

| 문장 성분 | 부사 | 부사절 |
|-------|---|---|
| 부사어 | 그는 밥을 천천히 먹는다. 비가 조용히 내린다. | 그는 밥을 해가 지도록 먹는다.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더 알아보기 I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의 ‘-이’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의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이다.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다른 절들은 모두 ‘어미’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는 부사절뿐만 아니라 명사절, 관형사절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이 부사절을 형성하는 ‘-게, -도록, -듯이’ 등은 모두 ‘부사형 어미’인데 유독 ‘-이’만 접미사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이’를 접사 ‘-이’와 어미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부사 파생 접미사에 의한 절 형성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가 무조건 부사절을 형성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때 ‘-이’가 부사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계를 맺는 문장 성분이 따로 드러나야 한다.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에서 ‘없이’와 관계 맺는 ‘소리도’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비행기가 높이 난다.’에서 ‘높이’는 단지 부사의 역할만 할 뿐 부사절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02. 통사론

예 어제 공부한 도서관에서 불이 났다.

- ① 꾸밈을 받는 명사: 도서관
 - ② (어제 공부한) 도서관에서 불이 났다.
 - ③ '도서관'을 괄호 안에 넣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면?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 ⇒ 관형사절: '어제 공부한', 생략된 문장 성분: 부사어(도서관에서)

예 나는 땀을 흘리는 사람을 보았다.

- ① 꾸밈을 받는 명사: 사람
 - ② 나는 (땀을 흘리는) 사람을 보았다.
 - ③ '사람'을 괄호 안에 넣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면? '사람이 땀을 흘린다.'
- ⇒ 관형사절: '땀을 흘리는', 생략된 문장 성분: 주어(사람이)

예 철수는 네가 먹었던 빵을 먹고 싶어 한다.

- ① 꾸밈을 받는 명사: 빵
 - ② 철수는 (네가 먹었던) 빵을 먹고 싶어 한다.
 - ③ '빵'을 괄호 안에 넣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면? '네가 빵을 먹었다'
- ⇒ 관형사절: '네가 먹었던', 생략된 문장 성분: 목적어(빵을)

㉠ 생략이 없는 관형사절(동격 관형사절)

예 나는 **그가 돌아온** 사실을 알고 있다.

위의 생략이 있는 관형사절과 달리 꾸밈을 받는 '사실'은 관형사절 안에 생략되어 있지 않다. '사실이 그가 돌아오다(×)', '그가 사실을 돌아오다(×)', '그가 사실에 돌아오다(×)'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 모두 동격 관형사절이다.

예 나는 **내일 공부할** 계획을 취소했다. **곧 그가 이민 간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는 **나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적용 문제-32

2017년 7월 고3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두 개의 홑문장을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 때, 두 홑문장 중 한 문장에서 특정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홑문장 ㉠, ㉡을 하나의 겹문장 ㉢으로 만든 예인데요, ㉢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 ㉠ 철수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였다.
- +
- ㉡ 공원은 학교 뒤에 있다.
- ↓
- ㉢ 철수가 산책을 한 공원은 학교 뒤에 있다.

학생: _____ [A] _____

- ① ㉠이 ㉡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② ㉠이 ㉡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의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③ ㉠이 ㉡에 부사절로 안기면서 ㉠의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④ ㉠이 ㉡에 부사절로 안기면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⑤ ㉠이 ㉡에 명사절로 안기면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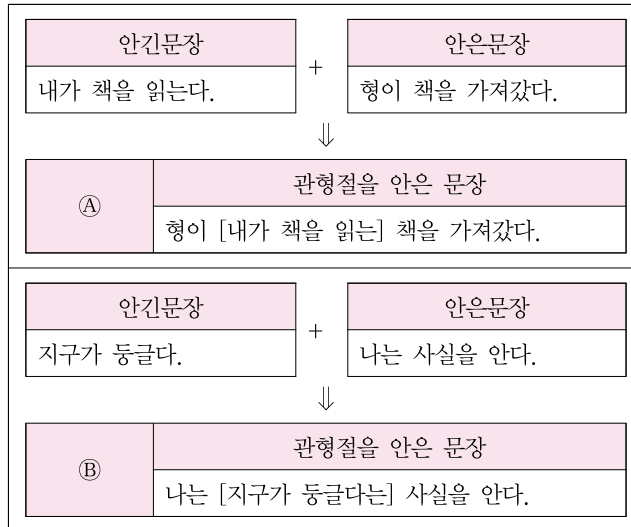
적용 문제-33

2019년 11월 고2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는 절을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의 두 유형에 대해 배워 봅시다.



위에서 보듯이, Ⓐ의 유형처럼 안은문장과 공통된 체언이 생략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 있고, Ⓑ의 유형처럼 생략된 성분 없이 문장의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춘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 있습니다.

[탐구 과제]

다음의 관형절을 안은 문장들을 탐구해 보자.

- ㄱ. 그가 지은 시는 감동적이었다.
- ㄴ. 나는 벽에 걸려 있던 사진을 떠올렸다.
- ㄷ. 나는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 ㄹ. 그 사람이 나를 속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 ㅁ. 나는 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 ① ㄱ은 안긴문장의 체언을 생략하여 관형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다.
- ② ㄴ은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공통된 체언이 생략되지 않고 관형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다.
- ③ ㄷ은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라는 안긴문장이 생략된 성분 없이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다.
- ④ ㄹ은 관형절이 문장의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다.
- ⑤ ㅁ은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공통된 체언인 ‘땀’이 관형절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다.

(4) 서술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과 달리 서술절에는 ‘-음, -게, -은’ 등과 같은 전성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절 하나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술절은 **항상, 무조건 ‘코끼리(은/는/이/가) 코(은/는/이/가) 길다’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을 외워두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앞에 나온 ‘코끼리가’가 전체 문장의 주어, ‘코가 길다’가 서술절이고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다만, ‘나는 어른이 되었다.’처럼 ‘되다/아니다’ 앞의 문장 성분은 보어이므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서울은 집값이 비싸다. 할아버지께서 정이 많으시다.
이 가방은 주머니가 많다. 어제 산 배추가 값이 비싸다.

적용 문제-34

2014년 9월 고2

〈보기 1〉의 자료를 읽고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절(節)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결합되어, 전체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 있는 형식을 말한다. 서술절은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서술절을 포함한 전체 문장은 꺾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 나오는 문장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이외에 서술절(주어+서술어)을 지니고 있다.

〈보 기 2〉

- ㄱ. 토끼는 앞발이 짧다.
- ㄴ. 이 산은 나무가 많다.
- ㄷ.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

- ① ㄱ~ㄷ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 ② ㄱ의 ‘토끼는’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다.
- ③ ㄴ의 ‘나무가 많다’는 전체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 ④ ㄱ과 ㄴ은 서술절이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다.
- ⑤ ㄴ의 ‘나무가’와 ㄷ의 ‘대학생이’는 서술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5) 인용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나타낸 절이다. 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이 **전성 어미**에 의해 형성되는 것과 달리 인용절은 **부사격 조사 '라고, 고'**에 의해 형성된다.

① 인용절의 종류

㉠ 직접 인용절: 본래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

“……”+부사격 조사 ‘라고’

- 예** 철수가 “강아지가 참 귀엽다.”**라고** 말했다.
 철수가 “강아지가 몇 살이야?”**라고** 물었다.
 선생님께서 “숙제를 잘 해 와라.”**라고** 말하셨다.
 철수가 “같이 숙제를 하자.”**라고** 말했다.

㉡ 간접 인용절: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타내는 것.

다/냐/라/자+부사격 조사 ‘고’

- 예** 철수가 강아지가 참 귀엽**다고** 말했다.
 철수가 강아지가 몇 살이**냐고** 물었다.
 선생님께서 숙제를 잘 해 오**라고** 말하셨다.
 철수가 같이 숙제를 하**자고** 말했다.

② 직접 인용절에서 간접 인용절로 바꾸기

직접 인용절에서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주의할 점은 **인칭 대명사**, **시간 표현**, **지시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 예** 유럽에 있는 철수는 어제 나에게 “**나** **내일**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다.
 → 유럽에 있는 철수는 어제 나에게 **자기가** **오늘** 그곳을 떠난다고 말했다.

(6) 안은문장의 종류를 판별하는 방법 필수암기

- ① 명사절: 명사형 전성 어미 ‘-음, -기’가 붙은 것
- ② 관형사절: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을 가지고 있는 문장
- ③ 부사절: 부사형 전성 어미 ‘-게, -도록, -듯이’, 부사 파생 접미사 ‘-이’를 가지고 있는 문장
- ④ 서술절: ‘코끼리가(는) 코가 길다’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 ⑤ 인용절: “……”라고, 고(-다고, -냐고, -자고, -라고)의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것

적용 문제-35

2020학년도(2019년) 9월 평가원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학습 활동]
 겹문장은 홑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홑문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겹문장을 만들어 보자.

| <자료> | <조건> |
|-------------------|---------------|
| • 날씨가 춥다. |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 • 형은 물을 마셨다. |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 •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 • 형은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 ① ㉠: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 ② ㉡: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③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 ④ ㉣: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 ⑤ ㉤: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적용 문제-36

2020년 3월 고3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 관형절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데 관형절에는 주어와 생략된 관형절,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 등이 있어요. 그리고 명사절은 안은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문장에 대해 관형절과 명사절에 주목하여 분석해 볼까요?

- ㉠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들이 많았다.
- ㉡ 마지막 문제를 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 ㉢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빵을 형과 함께 먹었다.
- ㉣ 그는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했다.
- ㉤ 그들은 우리가 어제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이미 알았다.

- ① ㉠에는 주어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명사절은 없습니다.
- ② ㉡에는 관형절이 없고,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습니다.
- ③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명사절은 없습니다.
- ④ ㉣에는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부사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습니다.
- ⑤ ㉤에는 관형절이 없고,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습니다.

적용 문제-37

2022학년도(2021년 시행) 6월 평가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아래 그림에 따라 [자료]의 ㉠~㉤를 분류할 때, ㉢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자료]

㉠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
 ㉡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
 ㉢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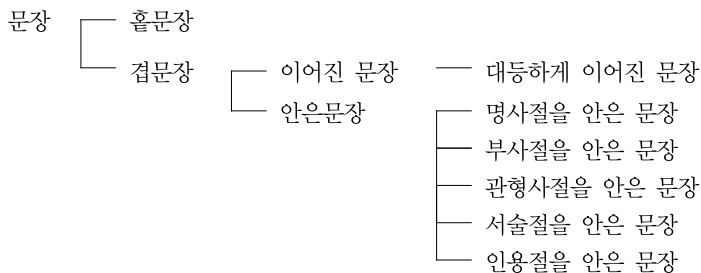
-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더 알아보기 I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vs 부사절을 안은 문장

6차 교과서에서는 ‘-게, -도록, -듯이, -이’가 붙은 것만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볼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자.

부사절을 안은 문장의 특징은 절의 위치가 자유롭다는 것인데, 본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다루어진 ‘비가 와서 길이 질다.’를 보자. 이 문장은 선행절 ‘비가 와서’와 후행절 ‘길이 질다’가 나란히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그런데 ‘비가 와서’를 ‘길이 질다’ 중간에 넣으면 어떨까? ‘길이 비가 와서 질다.’와 같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부사절을 안은 문장과 같이 절의 위치가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그러면 문장의 분류는 다음과 같아진다.



그렇다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둘을 구분하라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구분해야 한다면 **위치로 구분하면 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주어+서술어, 주어+서술어’로 나란히 연결될 것이고, 부사절을 안은 문장은 ‘주어+(주어+서술어)+서술어’로 전체 문장 안에 안겨 있을 것이다.

다음은 실제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서 출제된 것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서 출제된 것의 목록이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에서는 여전히 ‘-이’, ‘-게’, ‘-도록’만 출제된 것도 특징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
- 가을이 오면 곡식이 익는다.
-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깊어진다.
- 책을 읽으려고 학교 도서관으로 갔다.
-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책을 읽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자꾸 불렀다.
- 책을 다양하게 읽어서 그는 지식이 풍부하다.
- 바람이 불어서 단풍잎이 흔들린다.
- 나는 첫차를 타려고, 새벽에 일어났다.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암벽 등반은 힘들어서 재미있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

-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친구가 소리도 없이 내 뒤로 다가왔다.
- 그는 소리 없이 떠났다.
- 함박눈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
- 영수는 말도 없이 학교로 가 버렸다.
- 재희는 봉사활동에 아무도 모르게 참여한다.
- 빙수는 이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났도록 돌아다녔다.

2. 문장의 확장 한 줄 N제

정답및해설 p.28

- ☆ 1. 문장은 크게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 있는 ㉠ _____ 과 두 번 이상 나타나 있는 ㉡ _____ 이 있다. ㉢ _____ 은 다시 앞 절과 뒤 절이 나란히 연결된 ㉣ _____ 과 하나의 절이 전체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들어있는 ㉤ _____ 으로 나뉜다. ㉥ _____ 에는 앞 절과 뒤 절이 '나열, 선택, 대조'의 의미로 이어진 ㉦ _____ 과, '원인, 의도, 조건, 양보' 등의 의미로 이어진 ㉧ _____ 이 있다. ㉨ _____ 에는 세부적으로 ㉩ _____, ㉪ _____, ㉫ _____, ㉬ _____ 이 있다. (㉩~㉬의 순서는 상관없음)

[2~43] 다음 문장이 문장의 분류에서 어떤 문장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시오.(ex 명사절을 안은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2. 민석이가 범인임이 드러났다. _____
3.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_____
4. 그는 밥을 해가 지도록 먹는다. _____
5. 자네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왔네. _____
6. 밥을 먹거나 빵을 먹어라. _____
7. 하늘이 높다. _____
8. 그분을 만나거든 인사 말씀을 전해 주세요. _____
9.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 했다. _____
10. 철수가 강아지가 몇 살이냐고 물었다. _____
11. 나는 학교에 가려고 일찍 일어났다. _____
12. 나는 학생이 아니다. _____
13.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_____
14. 나그네가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 _____
15. 그는 민석이가 범인임을 알았다. _____
16. 그는 가수이면서 배우이다. _____
17. 그는 사실을 알았다. _____
- ☆ 18. 나는 어려운 외국어를 말하기에 능통하다.(2개) _____, _____
19. 그는 한국에서 제일 노래를 잘 하는 가수이다. _____
20.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 _____
- ☆ 21. 어제 본 서울은 야경이 예쁘다.(2개) _____, _____
22.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_____
23. 나는 예쁜 옷을 샀다. _____

02. 통사론

- 24.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다. _____
- 25. 할아버지께서 정이 많으시다. _____
- ☆ 26.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_____
- 27. 이 예쁜 가방은 주머니가 많다.(2개) _____, _____
- 28. 농부들은 비를 기다린다. _____
- 29. 철수가 "강아지가 참 귀엽다."라고 말했다. _____
- 30. 비가 와서 길이 질다. _____
- 31. 수학이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_____
- 32. 철수는 밥을 아주 빨리 먹는다. _____
- 33. 오늘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_____
- 34. 수학은 어렵지만 국어는 쉽다. _____
- 35. 그것이 금덩이라도 난 안 가진다. _____
- 36. 귀여운 우리집 강아지는 몸집이 작다.(2개) _____, _____
- 37. 나는 새 옷을 샀다. _____
- 38.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_____
- 39. 이것은 대중을 위함이 아니다. _____
- 40. 내 소원은 네가 합격하기이다. _____
- 41.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_____
- 42. 봄이 오면 꽃이 핀다. _____
- 43. 나는 아이들이 지나가게 길을 비켜주었다. _____

[44~50] 다음 문장이 관계 관형사절(생략이 있는 관형사절)인지 동격 관형사절(생략이 없는 관형사절)인지 쓰시오.

- 44. 나는 아직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_____
- 45. 난 그가 살았던 고향에 가 보았다. _____
- 46. 내기에서 진 사람이 밥을 사자. _____
- 47. 그는 내일 공부할 계획을 취소했다. _____
- 48. 그는 나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 _____
- 49.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다. _____
- 50. 나는 어제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샀다. _____

[51~68] 다음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쓰시오.

- 51. 이 학교가 내가 입학할 학교이다. _____
- 52. 나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_____
- 53. 내가 선물을 준 사람은 영희이다. _____
- 54. 철희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이다. _____
- 55. 어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_____
- 56. 값이 비싼 배추를 어제 샀다. _____
- 57. 어제 배추를 산 시장은 멀리 있다. _____
- 58. 이 책상은 나의 키에 딱 맞는 책상이다. _____
- 59. 예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다. _____

60. 어제 학교에서 본 시험에서 나는 100점 받았다. _____
61. 다음 달에 사려고 한 핸드폰이 오늘 출시되었다. _____
62. 아파서 학교에 결석을 한 친구가 걱정된다. _____
63. 내일 개봉될 영화가 기대된다. _____
64. 나는 내일 미국으로 이민 가는 친구를 공항에서 배웅하였다. _____
65.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온다. _____
66. 배고파서 급하게 먹은 음식 때문에 나는 속이 안 좋다. _____
67. 여기서 팔리는 물건 _____
68. 여기서 파는 물건 _____

[69~72]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시오.

69. 철수는 “내가 할게.”라고 했다. ⇨
70. 그녀는 어제 나에게 “내일 만나자.”라고 했다. ⇨
71. 유럽 여행을 간 친구가 나에게 “그곳이 부러워.”라고 했다. ⇨
- ☆ 72. 유럽에 있는 철수는 어제 나에게 “나 내일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다. ⇨